



이명연 도의회 부의장, 어린이집연합회사 감사패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주0선거구)이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실(2층)에서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도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합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명연 부의장은 이전에도 전북민의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정책을 추구하는 5분발언을 실시하는 등 도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명연 부의장은 “최근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필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무주 설천면, 생활개선회 성금·착한가게 탄생

무주군 설천면생활개선회(회장 현미숙) 회원들이 지난 18일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현미숙 회장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은 정성”이라며 “회원들 모두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천면 지역에 착한가게 55호점이 탄생했다. 지난 13일 착한가게 현판을 건 BHC무주대원도원점은 앞으로 매 출역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로 했다.

BHC무주대원도원점 박복실 대표는 “태권도 성지 무주를 대표하는 가게라는 자부심으로 기부에 동참할 것”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윤봉읍, 현장읍장실·찾아가는 건강교실 추진

남원시 윤봉읍(읍장 이은주)은 올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 읍장실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추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읍장실은 지난 2월 11일부터 34개 마을을 순회하며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및 마을별 추진(예정)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밀착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동시에 추진해 혈압, 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건강 상담으로 건강 지킴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한 어르신은 “읍장님께서 직접 윤봉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건강도 관리해 주시니 몸과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읍장은 “바쁜 일중에도 모여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읍장으로 한층 보람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마령면 사회단체, 관내 어르신에 간식 나눠

진안군 마령면 사회단체들은 관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간식 나눔에 손을 모았다.

18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는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호떡과 어묵탕을 나누며 서로의 인부를 묶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마령면 황인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마령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령면 조은영 새마을부녀회장은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화합과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나의 인생 나의 야구’ 주제 특강

김성환 기아타이거즈 前감독, 모교 군상상일고 방문... 50년 야구인생 전해

前 기아타이거즈 감독이자 현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장인 김성환(군상상일고 33회)이 18일 모교인 군상상일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군상상일고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번 방문에서 군상상일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야구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50년 야구 인생을 전했다.

김성환 감독은 “50여 년 전 이곳에서 후배 여러분들처럼 땀 흘리며 시절을 화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어린이집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초등학교 시절 승승장구 했던 이야기 중학교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고 방황하며 야구를 그만두려던 이야기를 했다.

이어 사춘기 시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이준원 선생님과 대한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다시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학과 프로선수 그리고 기아타이거즈 감독과 모교 군상상일고에서의 감독으로 후진 양성에 힘썼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도영 학생(3년)은 프로에 입단한 선배들은 팀훈련



을 하루에 2~3시간 정도만하고 나머지는 개인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선수과 프로선수로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김 감독은 “팀훈련은 수비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프로선수이기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개인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야구는 단체운동이며 무엇보다 팀의 조직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2025 ASC 방콕 아시안 라이프킴서 활약

임실군청 사격팀(백정현 황성은 이시운 선수)이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쾌거를 거뒀다.

2025 ASC 방콕 아시안 라이프킴은 임실군청 사격팀이 올해 첫 출전한 대회로, 선수들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는 지난 9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렸으며, 본격적인 경기는 11일부터 시작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10m 공기권총과 25m 권총 종목에 출전해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총 1,705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또한 25m 권총 종목 단체전에서 총 1,734점을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전에서는 이시운 선수가 본선 3위로 결선에 진출한 후 32점을 기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임실군청 사격팀은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대한민국 사격과 임실군의 위상을 높였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사격팀이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명예를 빛내주어 자랑스럽다”며 “앞으



로도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내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용영 기자

남원 도통동, 찾아가는 경로당 소통간담회 추진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17일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시정 주요사항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행사로,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2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제95회 춘향제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남원복지안전119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안내 △불철 산불방치대책 기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남원 누리시만제도 △2025년 귀향·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025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행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 △남원시 공공신포아센터 “나온” 개관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등 시정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복숭아 공선회, 무주군에 장학금 554만2000원기탁

무주군 복숭아 공선회 회원들이 지역안제 육성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공선회(회장 한상철)와 구천동공선회(회장 조지현)가 지난 17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54만 2천 원을 기탁했다.

한상철 회장과 조지현 회장은 “작년 여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출하 물량에서 1kg당 10~11원을 적립해 장학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역과 인재 육성을 위해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만큼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 복숭아 공선회는 무주(무주읍, 적산면) 24명, 구천동 지역 23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2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그동안 기탁한 금액은 1천3백여만 원에 이른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향교동, 독거노인 가구 방문건강지킴이 나서

남원시 향교동에서는 동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이 팀을 구성하여 직접 1일 1가구 이상 가구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하여 남원아이콤플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아이콤플에서 반찬을 조리하면 1일 1가구 방문팀이 독거노인 가구에 반찬을 배달하면서 건강 및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복지욕구를 확인한다.

한 어르신들은 “혼자 있다보니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성 가득한 따뜻한 반찬을 가져다 주니 너무 고맙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최현목 향교동장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더담우, 취약계층에 한우보신 2000세트 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프리미엄 한우 가공식품 전문기업 더담우(대표 이동규)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우보신세트 2,000세트(3,000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이동규 더담우 대표, 양효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더담우는 2020년 법인 설립 이후 2023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기업으로, 전복산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된 한우보신세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더담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기원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이 18일 2036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경진 의장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올림픽 유치기원”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지난 17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슬로건인 GBCH(GO Beyond, Great Harmony)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1월 13일 김관영 지사로부터 릴레이형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의 지목에 대한 응답으로서 챌린지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

이현웅 원장은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공은태 남원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올림픽 유치기원”

남원 의용소방대연합회 공은태 회장은 지난 18일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전북의 도전과 염원을 널리 알리고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은태 연합회장은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GBCH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면 전 세계인들에게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